

위재권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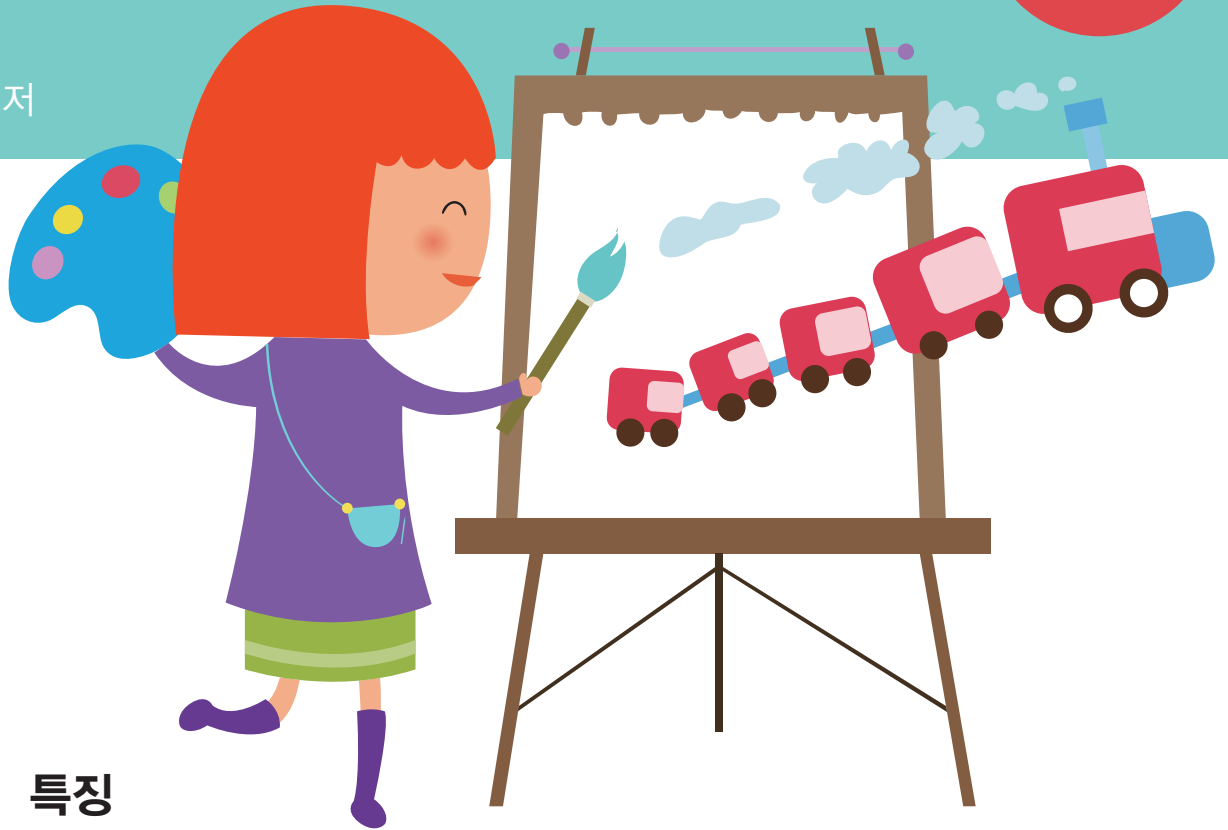
### 이 책의 특징

1. 기출 지문 개박살 내기 - 국어/사회/수학/과학
2.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변형
3.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 분석
4. 2022개정 교육과정 + 국정·검정 지도서 각론을 연계해서 문제수록

### 문제뽐개기-초등편

**기출 지문 개박살 내기 237제**  
+  
**과목별 기출변형 뽐개기 120제**  
+  
**실전모의고사 뽐개기 10회**

위재권 편저



## 이 책의 특징

1. 기출 지문 개박살 내기 - 국어/사회/수학/과학
2.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변형
3.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 분석
4. 2022개정 교육과정 + 국정·검정 지도서 각론을 연계해서 문제수록

문제뽀개기-초등편

# 기출 지문 개박살 내기 237제

**국어**

**국어 기출 지문 개박살내기 답안**

1	<p>이 교사: 글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오독을 분석하여 독자의 읽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독을 한 경우에 독자는 자신의 읽기 과정에 대한 <b>점검</b>을 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다시 글을 읽는 조정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가설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독자가 자신이 잘못 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쳐 읽는 전략이 <b>자율적 수정</b>입니다. 독자 스스로 자신의 읽기에 오독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살피는 <b>점검</b>과 다시 읽는 것과 같은 조정을 할 때에 <b>상위 인지</b> 전략이 활용됩니다. 독자가 능동적으로 글을 읽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p>				
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b>오독 분석법</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을 적정한 속도로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음</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독해 질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전개 순서 등을 이해 함.</li> <li>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지 못하고, 숨겨진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글에 암시된 주제와 생략된 내용을 이해 하지 못 함.</li> </ul> <p>※ 독해 질문 결과 요약에서 알 수 있는 독해 수준을 쓰시오. <b>사실적 이해</b></p> </td> </tr> </table>	<b>오독 분석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을 적정한 속도로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음</li> </ul>	독해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전개 순서 등을 이해 함.</li> <li>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지 못하고, 숨겨진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글에 암시된 주제와 생략된 내용을 이해 하지 못 함.</li> </ul> <p>※ 독해 질문 결과 요약에서 알 수 있는 독해 수준을 쓰시오. <b>사실적 이해</b></p>
<b>오독 분석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을 적정한 속도로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음</li> </ul>				
독해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전개 순서 등을 이해 함.</li> <li>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지 못하고, 숨겨진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글에 암시된 주제와 생략된 내용을 이해 하지 못 함.</li> </ul> <p>※ 독해 질문 결과 요약에서 알 수 있는 독해 수준을 쓰시오. <b>사실적 이해</b></p>				
3	<p>20. '전문가의 견해'는 어떤 근거 유형에 속하는가? ① 사실 논거 …… ⑤ <b>의견</b> 논거</p>				
4	<p>(다) <b>자기 회상법</b>을 활용한 쓰기 평가 사례</p> <p>1) 평가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목적: 쓰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글을 쓰고 있는지 평가한다.</li> <li>평가 방법: 학생의 쓰기 과정에 대한 자료를 <b>자기 회상법</b>을 활용하여 수집한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보면서 학생 스스로 쓰기 과정을 분석하게 하고 교사가 학생과 함께 평가적 대화를 나누며 쓰기 수행 특성을 평가한다</li> </ul> <p>2) 평가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자기 회상법</b>을 활용해 수집한 학생 B의 자료</li> </ul>				
5	<p>공감적 듣기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b>비판</b>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며 듣는 방법이다. 공감적 듣기는 크게 <b>소극적</b> 들어주기와 <b>적극적</b> 들어주기로 구분한다. 공감적 듣기는 참여자 간에 메시지가 원활하게 소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p>				

6	<p>㉠ <b>듣는이와의 관계 맺기</b></p> <p>교사: 그렇구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b>청중</b>이 관심 있어 할 만한 <b>주제</b>로 잘 골랐네</p> <p>교사: 이런 <b>공신력</b>을 갖춘 자료를 활용하면 발표 내용을 잘 뒷받침할 수 있고 청중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 할 거야. 그리고 혹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거면, 자료 <b>출처</b> 부분을 살펴보고 식품이나 영양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중심으로 선택하면 되겠다.</p> <p>교사: 발표는 말로 전달하다 보니 청중이 내용에 집중해서 듣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우선', '다음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데'와 같은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발표 내용의 <b>연결 관계</b>를 보여 줄 수 있어 알려 주고 싶어요.</p>
7	<p>(나) 미영이는 마루가 하는 발표를 들으면서 <b>중심 내용</b>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p> <p>(다) 영철이의 첫 번째 질문에 비추어 볼 때, 영철이는 발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b>배경 지식</b>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p>
8	<p>준비된 말하기라 하더라도 <b>청중</b>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듣기,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b>상호 작용</b>하는 것을 넘어 <b>상호교섭</b>을 통해 역동적으로 <b>의미</b>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청중의 반응에 따라 말할 내용과 방법을 조절해 가며 역동적으로 <b>의미</b>를 주고받는 것은, 청중의 반응을 무시한 채 준비된 발표문을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것과는 다르다.</p>
9	<p>교사: 영호의 연설을 잘 들었나요? 이를 바탕으로 보면, 말하기는 쓰기와 달라서 내용 조직이 시각적으로 잘 구분되어 전달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영호는 연설에서 담화 구조를 논리적으로 드러내는 <b>내용 연결 표현</b>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구어 의사소통의 특징인 만큼 여러분도 청자의 입장에서 이 의사소통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학생 화자가 연설자로서 어떻게 <b>공신력</b>을 보완하는가의 문제예요. 영호가 성실하게 자료 조사를 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이 외에, 추가로 사용한 방법이 인상적이에요.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또래 집단을 <b>설득</b>해야 하거든요.</p>
10	<p><b>【해설】 내용 연결 표현 찾기</b></p> <p><b>“뿐만 아니라”</b> → 성인 →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장 <b>“후자에 대해서만”</b> → 앞에서 제시한 두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어감 <b>“이 일을 계기로”</b> → 사건 → 이후 변화로 계기 연결 <b>“항상 ~는 없습니다”</b> → 일반적 인식에 대한 제한/반전 연결 <b>“때문입니다”</b> → 앞 내용을 이유로 정리</p>

11	㉠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해 자의적으로 지어내고 있으므로, '메모하며 듣기' 방법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12	<p>학급 회의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회자는 회의의 시작, 표결, 끝을 알리는 등 정해진 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확인하여 <b>순서</b>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b>발언권</b>을 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번도 발표하지 않은 학생과 자주 발표한 학생이 동시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학생을 지명하는 것이 좋다.</p>
13	<p>수석 교사: 학생이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알고 이를 지키며 토론하게 하는 데 가장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토론 절차를 기억하기 어려웠는데, <b>입증(의) 책임</b>이 있는 쪽이 먼저 발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 기억하기 쉬웠어요. 가령, 정책 논제 토론에서는 <b>현 상태의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b> 측이 먼저 주장을 제시해야 반대 측이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등 많은 토론 형식에서 <b>찬성</b> 측이 먼저 입론하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p> <p>'수석 교사: 맞아요. 그래서 토론에서도 한 사람의 참여자가 의사소통 상황의 매순간 화자 역할과 청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참여자 간에 의미를 공유하고 협상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b>상호 교섭</b>하기 기능을 잘 발휘해야 해요. 그래야만 토론이 일방적인 말하기와 듣기가 아닌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p> <p>수석 교사: 저는 논제를 요건에 맞게 잘 표현해 주니 도움이 되었어요. <b>정책</b> 논제의 경우, 현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해야 해요. 또한 평서문의 형태로 하나의 주장만 담아야 하죠</p> <p>(나) <b>찬성</b> 측1 입론→<b>반대</b> 측2 질문→<b>반대</b> 측1 입론→<b>찬성</b> 측1 질문→<b>찬성</b> 측2 입론→<b>반대</b> 측1 반박→<b>찬성</b> 측1 반박→<b>반대</b> 측2 반박→<b>찬성</b> 측2 반박</p> <p>찬성 측1: 저희는 <b>사형 제도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b> 주장합니다. 그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무고한 사람을 오판하여 사형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p>
14	<p><b>학생:</b> 반대 신문식 토론의 경우 <b>찬성</b> 측에서 입론을 먼저 시작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토론을 하다가, 협의 시간 이후에는 순서를 바꾸어 <b>찬성</b> 측이 마지막으로 반박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p> <p><b>교사:</b> 아, 그것은 주로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b>입증</b>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p>

15	(가)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대립하는 두 측이 규칙에 따라 서로를 설득해 나가는 상호작용이다. 토론에서는 <b>찬성</b> 측에서 먼저 발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b>찬성</b> 측이 현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b>반대</b> 측은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16	독서는 독자 개인의 경험과 <b>배경 지식</b> 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의미 구성의 주체는 <b>개별 독자</b> 로 전제되는데, 이는 독자가 사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협동 학습의 원리를 반영하여 독자들이 글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독서 지도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b>독서토론</b> 등이 있는데, 이 독서 지도 방법들은 독자들 간 의미 경쟁을 통해 내용을 명료하게 파악하게 하고, 합리적인 의미로 내면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새로운 생각을 얻거나 입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하여 개별 독자의 독서는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되어 소통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때 글의 의미는 <b>사회적</b> 차원에서 재구성되며 <b>독자 공동체</b> 에서 공유되고 소통된다. 이로써 독자는 개인 차원의 독서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주체로서의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17	<p>○ 연설할 때 <b>비언어적</b>, <b>반언어적</b> 표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 봅시다.</p> <p>수석교사: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연설을 듣고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b>비판적</b> 듣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적 듣기나 추론적 듣기에 그쳤다는 거네요. 연설을 듣기 전에 주장의 <b>타당성</b>을 판단하는 기준을 미리 안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요.</p> <p>수석교사: 선생님, <b>녹화기록법</b> 을 써 보면 어떨까요? 이 방법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지만, 연설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반복하여 보면서 <b>학생들의 강점과 약점</b>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p>				
18	<table border="1"> <tr> <td>면담 열기</td> <td>면담 대상자와 가벼운 인사말 <b>면담목적</b></td> </tr> <tr> <td>질문하기</td> <td>           ㉠ 구체적 <b>사실</b> 질문            ㉡ 생각이나 느낌을 알기 위한 상술 질문            ㉢ 엄밀한 조사 질문         </td> </tr> </table>	면담 열기	면담 대상자와 가벼운 인사말 <b>면담목적</b>	질문하기	㉠ 구체적 <b>사실</b> 질문 ㉡ 생각이나 느낌을 알기 위한 상술 질문 ㉢ 엄밀한 조사 질문
면담 열기	면담 대상자와 가벼운 인사말 <b>면담목적</b>				
질문하기	㉠ 구체적 <b>사실</b> 질문 ㉡ 생각이나 느낌을 알기 위한 상술 질문 ㉢ 엄밀한 조사 질문				
19	<p>① '민주'의 첫 번째 발언을 통해서 <b>면담 일정과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b>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면담에 앞서 면담할 사람과 미리 약속하고 면담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p> <p>④ '현철'이는 교장 선생님의 말끝에 끼어들어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했지요? 그렇지만 면담에서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말고, 되도록 끝까지 <b>경청</b>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p>				

20	<p>김 교사: 다음 주 국어 시간에는 ‘문장을 소리 내어 읽기’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읽기 영역 중 <b>유창성</b>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p> <p>박 교사: 네, 읽기 <b>유창성</b>은 성호뿐만 아니라 저학년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죠.</p> <p>김 교사: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려고 하는데, 성호와 함께 할 수 있는 읽기 전략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p> <p>박 교사: 네, 저는 <b>반복읽기</b>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p>김 교사: 그렇다면 학급에서 <b>반복읽기</b>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p>										
	<p>읽기 능력은 <b>해독</b>능력에서 <b>독해</b> 능력으로 발달한다. <b>해독</b>능력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음운 인식, 단어 재인, 읽기 유창성 등의 하위 기능들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읽기 유창성은 단어 재인 기능과 독해 능력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읽기 유창성은 자동성, 정확성, <b>표현성</b>으로 구성되는데, 자동성은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 정확성은 글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b>표현성</b>은 글을 적절한 의미 단위로 유연하게 끊어 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p>										
	<p>나. 소리 내어 읽을 때 <b>의미</b>의 단위에 유의하며, 문장 부호의 쓰임새에 따라 알맞게 읽도록 지도한다.</p> <p>라. 뜻이 잘 드러나게 읽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야 하므로, &lt;예문&gt;을 읽을 때 ㉠을 <b>[업고]</b>로 발음하도록 지도한다.</p>										
22	<p>3. <b>성호가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의 글이 친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읽도록 지도한다.</b></p>										
23	<table border="1"> <tr> <td>읽기 활동</td> <td>교사의 질문</td> </tr> <tr> <td>글의 화제 파악하기</td> <td><b>어떤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나요?</b></td> </tr> <tr> <td><b>주요 내용 확인하기</b></td> <td>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td> </tr> </table>	읽기 활동	교사의 질문	글의 화제 파악하기	<b>어떤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나요?</b>	<b>주요 내용 확인하기</b>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읽기 활동	교사의 질문										
글의 화제 파악하기	<b>어떤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나요?</b>										
<b>주요 내용 확인하기</b>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24	<p>-2학년 수준에서 설명하는 글 읽기 활동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수업에서 글 행간의 의미를 미루어 이해하거나 글 전체의 자세한 내용까지 모두 이해하게 지도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b>설명의 대상(화제)</b>을 알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에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p>										
25	<table border="1"> <tr> <td><b>핵심어</b> 파악하기</td> <td>적절하게 수행함</td> </tr> <tr> <td>↓</td> <td>↓</td> </tr> <tr> <td>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찾기</td> <td><b>일반화</b> 오류가 있음</td> </tr> <tr> <td>↓</td> <td>↓</td> </tr> <tr> <td>문단별 중심내용 파악하기</td> <td><b>1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이 잘못됨</b></td> </tr> </table>	<b>핵심어</b> 파악하기	적절하게 수행함	↓	↓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찾기	<b>일반화</b> 오류가 있음	↓	↓	문단별 중심내용 파악하기	<b>1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이 잘못됨</b>
<b>핵심어</b> 파악하기	적절하게 수행함										
↓	↓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찾기	<b>일반화</b> 오류가 있음										
↓	↓										
문단별 중심내용 파악하기	<b>1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이 잘못됨</b>										

27	<table border="1"> <tr> <td>평가 방법</td> <td>진단 결과</td> <td>지도 방향</td> </tr> <tr> <td rowspan="2"><b>중요도</b> <b>평정법</b></td> <td>중심문장이 무엇인지 잘 모름</td> <td>예를 들어 개념을 이해시킴</td> </tr> <tr> <td><b>무조건 앞에 있는 것을 '높음'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b></td> <td>중심문장은 문단 내의 위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td> </tr> </table>	평가 방법	진단 결과	지도 방향	<b>중요도</b> <b>평정법</b>	중심문장이 무엇인지 잘 모름	예를 들어 개념을 이해시킴	<b>무조건 앞에 있는 것을 '높음'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b>	중심문장은 문단 내의 위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
	평가 방법	진단 결과	지도 방향						
<b>중요도</b> <b>평정법</b>	중심문장이 무엇인지 잘 모름	예를 들어 개념을 이해시킴							
	<b>무조건 앞에 있는 것을 '높음'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b>	중심문장은 문단 내의 위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							
28	<p>(다) 반복되는 말은 <b>핵심어</b>일 가능성이 많으니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게 해야지.</p> <p>(라) 간추린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읽는 목적 생각하기’ 를 해 보자.</p> <p>(마)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기 해서는 먼저 글을 이루고 있는 문단 하나하나의 <b>중심 내용</b>을 확인해야 해. 그러려면 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의 의미 관계를 따져야겠지.</p> <p>(바) 평가는 어떻게 하지?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알아 보려면 이 방법이 좋겠어. 이 방법을 쓰면 <b>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또 자기 점검이나 조정 같은 초인지적 사고를 했는지</b>를 알 수 있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말해보도록 해야겠어.</p>								
29	<p>김 교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읽기란 글과 독자의 만남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능숙하게 읽기 위해서는 <b>읽기 전략</b>을 활용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밑줄 그은 부분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시범 보일 테니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p> <p>지금까지 두 가지 대표적인 주장들을 살펴봤다. (㉠ ‘<b>지금까지</b>’ 라고 하니 <b>이제 술술 끝날 모양이야, 이러면 보통 요약 같은 게 오면데</b>.) 이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우주 개발은 인류에게 정신적 · 물질적 차원에서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								
30	<p>김 교사: 이번 사회 교과와의 융합 수업을 위해 국어 시간에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한 제재를 읽었어요. 학생의 <b>사고 구술 프로토콜</b>을 보니 해당 제재가 어려웠나 봐요.</p> <p>박 교사: 저도 봤는데요. 밑줄 구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b>중요한 단어나 중심 문장</b>에 밑줄을 그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아요.</p> <p>김 교사: 게다가 글에 제시된 전문어를 잘 몰라서 글을 다 읽었는데도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을 힘들어하더라고요.</p> <p>정 교사: 사회는 내용 교과과 전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학습한 개념을 <b>개념망</b> 만들기를 활용해서 서로 연결하여 정리하면 효과적이예요.</p>								



42	<p>유 교사: 정말 그렇네요. 학생 A는 예상 <b>독자</b>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표현 전략에 반영하거나, <b>독자</b>를 고려해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수준 같은데, 글이 미완성이예요. 그리고 학생 B는 내용 조직 차원에서 설명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한다거나 <b>높임</b> 표현을 일관되지 않게 쓰는 등 <b>독자</b> 고려 측면에서 아직 미숙해 보이고요.</p> <p>현 교사: 쓰기 지식 중에서 <b>글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해 알고 있는 지식</b>인 화제 지식이/가 부족한 것 아닐까요? 설명하는 글은 특히 정보성이 높게 요구되는 장르여서 자기 표현적 글과는 차이가 있으니까요.</p> <p>현 교사: 정확하고 완결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니 ㉠ <b>결과중심 쓰기 교수 학습 방법</b>에 따라 글의 오류를 수정해 주고 <b>모범 글</b>을 따라 써 보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p> <p>서 교사: 그것도 <b>담화의 관습적 규약</b>을 익힌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저는 쓰기가 사회적 행위라고 봐서 ㉡ <b>장르 중심 쓰기 교수 학습 방법</b>을 활용하려고요. 과거와 현재의 설명 글이, 제품 설명서와 학급 신문의 설명 글이 다르듯, 장르는 <b>소통 맥락</b> 속에서 존재하고 계속 변화하지요. 장르의 특성 탐구하기, 그 특성과 <b>소통 맥락</b> 연관 짓기, 자기 글을 공유해 <b>담화 공동체</b>의 반응 경험하기 등을 통해 설명하는 글에서 설명 방법이 어떻게 가능하며 왜 중요한지 알고 독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필자로 길러 주고 싶어요.</p>
43	<p>작문 이론에 따라 독자의 위상과 개념이 상이하게 논의되었다. 독자에 대해, 텍스트의 형식을 중시하는 작문 이론에서는 <b>수동적인 수신자</b>로, 글쓰기를 개인의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는 작문 이론에서는 '<b>능동적인 해석자</b>'로, 글쓰기를 사회적 행위로 보는 작문 이론에서는 '<b>해석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b>로, 글쓰기를 다성(多聲)적인 활동으로 보는 작문 이론에서는 '<b>대화 참여자</b>'로 설명한다.</p>
44	<p>나는 누리집에 올릴 글을 쓰는 수업인 만큼, 글의 의미가 <b>글</b> 자체로 또는 <b>필자</b>의 인지 전략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그래서 글을 읽을 독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두루 공유하고 있는 지식, 신념이나 가치 등을 반영하여 더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글을 써야 한다고 지도하였다. 그리고 가시적인 실제 독자를 넘어서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예상 독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도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글을 살펴보니 주장하는 글의 장르적 특성과 그러한 글이 소통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후 글쓰기 수업에서는 ㉠ <b>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장르 관습</b>과 글쓰기 규범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겠다.</p>

45	<p>김 교사 : 좋은 쓰기 수업은 전범을 많이 접하고 따라 쓸 기회가 많은 수업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맞춤법을 틀리거나 문단 구분도 되지 않은 글을 쓰는데, 정확한 글을 쓸 수 있도록 글의 기본적 <b>형식</b>에 대한 학습과 숙달을 강조해야 해요.</p> <p>이 교사 : 공동체의 합의가 글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b>공동체의 담화 관습</b>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쓰기 수업은 <b>공동체 안에서 담화 관습</b>을 내면화하게 하는 수업이에요.</p> <p>서 교사 : 텍스트는 선행 저자와 후행 독자 간의 <b>대화적</b> 관계에서 의미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동 창작물로 볼 수 있어요. 주제, 독자, 필자가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글쓰기 수업이 좋은 쓰기 수업이라고 생각해요.</p> <p>하 교사 :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b>개인</b>의 사고 과정이에요. 좋은 쓰기 수업이라면 학생들이 다양한 쓰기 전략을 익혀 쓰기 과정에서 목표 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해요</p> <p>수정 후 제출된 글에서는 내 의도대로 학생들이 자료를 읽으며 접했던 목소리들과 비평 댓글에서 접했던 독자들의 목소리들이 <b>다성적으로</b> 드러나 있었다. 공동체의 담화 방식을 내면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들과 <b>교섭</b>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어 가는 대화적 글쓰기였다...</p>
46	<p>선생님의 수업은 모범적인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1차시, 글쓰기 과정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전략을 익히는 2차시, 워크숍 중심의 협동 작문을 시도하는 3차시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의 대단원을 재구성하여 <b>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b>, 작문 이론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이 좋았습니다. 차시별로 개선해야 할 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p>
47	<p>교사: ㉠ 독자를 고려하는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구나. <b>독자에게 위치나 역할</b>을 부여하거나, 독자의 반응이나 질문을 예측하여 미리 답변하거나,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글에서 다루는 정보를 포함 또는 배제는 등의 전략이 효과적이야</p> <p>교사: 점검 질문들에 답해 보면서 고쳐 쓸 부분을 확인해 봐. 특히 내용적인 <b>통일성</b>과 ㉡ <b>텍스트 표면에 드러나는 형식적 연결 관계</b>를 꼭 살펴보렴</p>
<p><b>【해설】 위치·역할을 부여한 경우</b>  <b>예 - “여러분이 만약 환경 보호 활동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b>      ㉢ 여기서 독자는 ‘환경 보호 활동가’라는 역할을 부여받음  <b>예 - “당신이 이 학교의 학생이라면 급식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b>      ㉢ 독자는 ‘그 학교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됨</p>	

48	<p>② <b>과정 중심</b> 접근법에 근거하여 단원을 잘 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정 쓰기 전략의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하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한 것도 의미가 있다.</p> <p>㉠ 그러나 학습 활동 4의 경우, 학생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책임 이양</b> 원리에 따라 교사가 먼저 몇 가지 내용 조직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 후, 학생들이 이 전략을 적용하여 내용을 조직하도록 해야겠다.</p>
49	<p>김 교사: 맞아요. 학생들은 도나티와 서로 모른다고 생각해서 편지에 공통적으로 <b>쓴 사람</b>을 밝히고 있어요.</p> <p>이 교사: 네, 이것은 편지의 형식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학생 1의 글에 비해 학생 2의 글에서 미숙한 필자의 특성이 나타나네요.</p> <p>김 교사: 네, 미숙한 필자는 자기 중심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쓰기가 <b>필자</b>와 <b>독자</b>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p>
50	<p>김 교사: 우리 반 아이들이 요즘 들어 식물 가꾸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쓰기 과제를 <b>아이들의 생활</b>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시하면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글을 쓸 것 같아 학교에 텃밭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는 글을 쓰게 하려고요.</p> <p>박 교사: 학습 목표와 쓰기 과제를 견주어 보니, <b>설득</b>이라는 쓰기의 목적이 제안하는 글이라는 유형으로 구체화되었군요. 다루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독자도 실제 독자여서 학생들이 실제적인 <b>맥락</b>을 고려하면서 글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p> <p>박 교사: 설득하는 글을 쓸 때 내용의 <b>타당성</b>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를 드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특히 이 쓰기 과제에서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들되, <b>사실</b> 논거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안내해 주면 좋겠군요. 우리 지역 학교 텃밭의 현황을 소개하는 통계 자료 등이 이에 해당되었네요.</p>
51	<p>교사 A: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성취기준을 토대로 수업을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설득을 <b>목적</b>으로 하는 글 쓰기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이에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주제로 제안하는 글 쓰기'를 쓰기 과제로 제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p> <p>교사 B: 설득을 <b>목적</b>으로 하는 글 쓰기도 쓰기 과제의 <b>실제성</b>을 고려한다면 재밌고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해요. 쓰기 과제를 학습용으로만 제한하거나 교실 안에서 평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겪는 실제 삶의 문제와 연계하면 어떨까요?</p>

51	<p>교사 B: 네, 저도 실제로 기부금을 보냈다는 그 기사 봤어요. 이 사례처럼 학생들이 구체적인 삶의 <b>맥락</b>과 연계된 글쓰기를 하면 쓰기를 매개로 한 소통의 힘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쓴 글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요.</p> <p>교사 A: 맞아요. 쓰기 전략을 익히는 것만큼이나 ㉢ 자신이 쓰기를 <b>성공적으로 수행</b>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나 믿음을 키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적 쓰기에 대한 경험이 필자로서의 자기에 대한 이러한 판단이나 신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선생님 조언을 반영해서 ㉣ '우리 학교의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교장 선생님께 제안하는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로 쓰기 과제를 수정해 수업을 해야겠어요.</p>
52	<p>드디어 논설문을 완성했다. 나의 주장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나오는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그 친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그것이 논설문을 쓴 <b>목적</b>이었다.</p> <p>서론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하고 관리하겠다고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내용을 <b>인용</b>하여 독자의 주의를 끌었다. 본론에서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예방 조치가 가능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였다. 글을 쓰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b>소견</b> 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일이었다.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나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의 말과 같은 <b>소견</b> 논거도, 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b>타당성</b>, 공정성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에서는 속담을 활용하여,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b>강조</b>하였다</p>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하기</li> <li>-<b>예상 독자, 글의 목적</b>, 유형, 분량에 대해 생각해 본다.</li> <li>○ 내용 생성하기</li> <li>-<b>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을 보며 경험을 떠올린다.</b></li> <li>-친구들과 수학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li> </ul> <p>최 예비교사: 네. 먼저 글부터 써 보라고만 하면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쓰기의 과정을 안내하고, 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b>전략</b>도 연습해 보게 하려고요.</p> <p>박 교사: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쓰기 과정에는 <b>회귀적</b>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표현하기 활동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다시 계획하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과정 전반에 대한 <b>점검</b>하기와 <b>조정</b>하기가 가능하지요. 그 점도 학생들에게 함께 안내해 주어야 해요.</p>

위재권 편저



## 이 책의 특징

1. 기출 지문 개박살 내기 - 국어/사회/수학/과학
2.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변형
3.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 분석
4. 2022개정 교육과정 + 국정·검정 지도서 각론을 연계해서 문제수록

문제뽐개기-초등편

과목별 **기출변형 뽐개기** 120제

**국어**

**기출변형 뽀개기 모범답안**

1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다. - ㉔ <b>■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b> ①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 준다. ②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다. ③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한다.
2)	1점	학습자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글을 찾아 읽고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구성한다
3)	1점	①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 살피기
4)	1점	출처
<b>【읽기】</b> [6국02-04]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b>(가) 성취기준 해설</b> [6국02-04] 이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글을 찾아 읽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구성하는 <b>창의적 읽기 능력</b> 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제 상황과 관련한 읽기 목적 명료화하기, 문제 상황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다양한 관점</b> 의 글 선정하기,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b>내용의 타당성과 유용성 평가</b> 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b>창의적인 해결 방안 마련</b> 하기 등을 학습한다.		

2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박 교사: 극본에서는 대사와 지문으로 인물의 마음을 드러낸다. 해설은 때, 곳, 나오는 사람, 무대와 무대 바깥 따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2)	2점	㉠ '먹을까'나 '좁을꼬'와 같이 묻는 말은 소리는 대로 쓰기 ㉡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에는 '-(으)로서'를 쓰고,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에는 '-(으)로써'를 쓰기 때문 <b>학급 회장은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학급 회장으로서'와 같이 쓰고, 농사의 시작은 한곳에 머물러 살게 된 수단이 되므로 '시작함으로써'와 같이 쓴다.</b>

3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① 대치 ② 치조음화
2)	1점	파열음화
3)	1점	평음의 유기음화(거센소리되기는 유기음화, 격음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표준 발음 지도 내용 - 음소

1번	모범 답안(예시)
오류 내용	해당 예
평음의 유기음화	• 갈치[갈치] → [갈치]. 나침반[나침반] → [나침반]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 '꺾'을 '기'로: 뭍로[뭍로] → [멀로]. 뭍했는데[뭍했는데] → [머했는데]. 뭍냐니까[뭍냐니까] → [머냐니까]. 뭍더라[뭍더라] → [머더라] • '과'를 '바'로: 바봐라[바봐라] → [바바라]. 해봤어[해봐써] → [해바써]. 봐요[봐요] → [바요] • '귀'를 '기'로: 귀엽고[귀엽꼬] → [기엽꼬].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 [가이바이보]. 귀신[귀신] → [기신] ※ '꺾'은 이중 모음은 아니나 「표준 발음법」에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며, 실제 언중은 대부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에 포함했다.
중모음의 고모음화	• 삼춘[삼춘] → [삼춘]. 그리고[그리고] → [그리구]. 나도[나도] → [나두]

■ 자음체계 (子音體系) : 자음 음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음운론적 대립의 총체를 가리키는 언어학 용어.

조음 위치		두 입술 순음	윗잇몸 혀끝 치조음	센입 천장. 혓바닥 경구 개음	여린입 천장. 혀 뒤 연구 개음	목청 사이 후음 성문음
파열음	예사 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 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 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 소리			ㅊ		
마찰음	예사 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조음위치

전설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음의 조음점보다 혀를 앞쪽으로 움직여 조음이 이루어지는 현상</li> <li>• <b>경구개음이 치조음으로</b> 대체되거나(예: /짜자꿍/ → /딱따꿍/), <b>연구개음이 치조음 또는 경구개음으로</b> 대체되거나(예: /자동차/ → /자돈차/), 성문음이 치조음, 경구개음 또는 연구개음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li> </ul>
후설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음의 조음점보다 혀를 뒤쪽으로 움직여 조음이 이루어지는 현상</li> <li>• 치조음이 경구개음, 연구개음 또는 성문음으로 대체될 경우(예: /자동차/ → /자종차/)</li> <li>• 경구개음이 연구개음 또는 성문음으로 대체되는 경우(예: /책상/ → /책장/) 등</li> </ul>
양순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순음이 아닌 음소가 양순음(ㅁ, ㅂ, ㅃ, ㅍ)으로 대체되는 경우</li> <li>• /장난감/ → /방난감/</li> <li>※ 아동들이 보이는 오류를 살펴보면 /ㅂ/ 계열이나 /ㅁ/으로 대체되는 빈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입소리(구음, oral sounds)는 /ㅂ/ 계열로, 콧소리(비음, nasal sounds)는 /ㅁ/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li> </ul>
치조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조음이 아닌 음소가 치조음(ㄷ, ㄸ, ㅌ, ㅊ, ㄹ, ㅅ, ㅆ)으로 대체되는 경우</li> <li>• /호랑이/ → /호란이/</li> </ul>
경구개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구개음이 아닌 음소가 경구개음(ㅈ, ㅉ, ㅊ)으로 대체되는 경우</li> <li>• /토끼/ → /초끼/</li> </ul>
연구개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음이 아닌 음소가 연구개음(ㄱ, ㄲ, ㅋ, ㅇ)으로 대체되는 경우</li> <li>• /김밥/ → /김방/</li> </ul>
성문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문음이 아닌 음소가 성문음(ㅎ)으로 대체되는 경우</li> <li>• /모자/ → /모하/</li> </ul>

● 조음방법

파열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열음이 아닌 음소가 파열음(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으로 대체되는 경우</li> <li>• /모자/ → /모다/</li> </ul>
마찰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찰음이 아닌 음소가 마찰음(ㅅ, ㅆ)으로 대체되는 경우</li> <li>• /책상/ → /색상/</li> </ul>
파찰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찰음이 아닌 음소가 파찰음(ㅈ, ㅉ, ㅊ)으로 대체되는 경우</li> <li>• /눈썹/ → /눈첩/</li> </ul>
유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음이 아닌 음소가 유음(ㄹ)으로 대체되는 경우</li> <li>• /오투기/ → /오투리/</li> </ul>
비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음이 아닌 음소가 비음(ㅁ, ㄴ, ㅇ)으로 대체되는 경우</li> <li>• /로봇/ → /로뫓/</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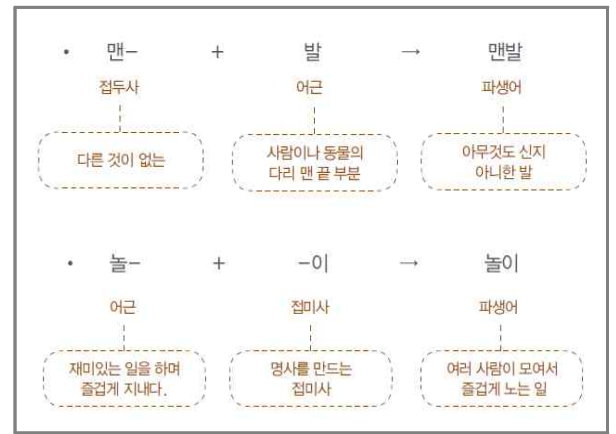
3번	모범 답안(예시)	
<p><b>① 음운변동</b></p> <p>음운변동은 음운학적 환경에 따라서 음소의 실현 형태가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현 형태가 변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것이고, 두 번째가 부정적인 것이다. 긍정적인 음운변동이라 하면 그 아동의 연령에 나타나야 하는 음운변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음운변동은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음운변동이 나타나는 것이다.</p> <p>예를 들어, 비음동화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음운변동과 부정적인 음운변동 현상을 모두 살펴보자. <b>‘국물’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국물’이라고 읽어야 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음운변동이고 이것이 국어 음운규칙의 비음동화 현상이다.</b> 그러나 ‘국물’을 ‘국문’일고 읽거나 말한다면 같은 비음동화 현상이더라도 이것은 부정적인 음운변동 현상이 되는 것이다.</p> <p><b>② 개별 음소의 조음 오류 형태</b></p>		
오류 형태	정의	예
생략	단어에서 음소나 음절이 빠지는 경우	/고기/-/오기/ /별/-/벼/
대치	목표음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경우 <b>대치 음운변동</b> ① 조음위치 ② 조음방법	/사탕/-/타탕/ /선생/-/면댕/
왜곡	표준음이 비표준음으로 바뀌는 경우	/서울/-/tʃɔ/
첨가	필요 없는 음이 삽입되는 경우	/우산/-/쿠산/ /커피/-/커오피/

4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1)의 어근 중 ‘버선, 신’은 명사, ‘붙-, 입-’은 동사이다 <b>【해설】</b> ㉠을 보자. 접사인데 여러 품사에 붙는 접사이다. (1)을 보자. 접사는 ‘덧’이고 어근은 ‘버선, 신’, ‘붙-, 입-’이다. 각각 명사와 동사이다.
2)	2점	(2)의 어근들은 모음으로 끝나는 음운론적 조건이 있다. (2)의 접사 ‘-롭-’은 명사 어근을 형용사 파생어로 바꾸므로 지배적 접사이다. <b>【해설】</b> (2)를 보자 접사는 ‘-롭-’이고 어근은 ‘슬기, 여유, 지혜, 향기’이다. 음운론적 조건이라는 점에서 자음/모음 등등의 단어인데, 다 공통적으로 모음으로 끝나고 있다. ㉡을 보자. 품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정적 접사가 아닌 품사를 바꿔버리는 지배적 접사이다. 어근은 ‘슬기, 여유, 지혜, 향기’는 기존에 명사였다. 그런데 접사 ‘-롭-’을 만나 형용사로 바뀌었다. 따라서 지배적 접사이다.

**■ 접사와 어미**

어근이나 어간과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를 **접사**라 한다. 접사는 반드시 어근이나 어간과 함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접사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한다.

우선, 어근과 결합하는 자리에 따라 어근의 앞에 위치하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위치하는 **접미사**로 나뉜다. ‘꽃사랑’의 ‘꽃-’, ‘드눴다’의 ‘드-’등은 접두사이고 ‘웃음’의 ‘-(으)ㅁ’, ‘정답다’의 ‘답-’은 접미사이다. 또한, 그 기능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접사**와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굴절접사**로 나누기도 한다. 파생접사에는 이미 언급한 ‘덧’, ‘드-’, ‘(으)ㅁ’, ‘답’이 있고, 굴절접사에는 ‘-다’, ‘-었/았-’등이 있다. 접두사는 굴절접사가 없어 모두 파생접사이고, 접미사는 굴절접사와 파생접사가 모두 존재한다. 굴절접미사는 흔히 **어미**라고 부른다. 접미사를 분류하여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번	모범 답안(예시)
----	-----------

그런데 흔히 접사라 하면 파생접사만을 가리킨다. 결국 접사는 좁은 의미로는 파생접사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굴절접사(=어미)와 파생접사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위에서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한 진술에서 접사란 좁은 의미의 접사, 곧 파생접사를 지칭한다.

**파생접사가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어근의 품사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어근의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 이때 결합하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 하고 어근의 품사가 바뀌는 경우 이때 결합하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 한다.**

**■ 어근**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語根)이라 한다. 실질 형태소는 어근의 자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바다'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고 '논밭'은 어근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인 것이다.

**■ 어근과 어간의 구별**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중심 부분이고 어간은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먹이다'의 경우 '먹-'이 어근이고 '먹이-'가 어간이다. '눈물'의 경우 '눈'과 '물'은 어근이고 어간은 없다. 즉 어간은 용언에만 쓰이는 개념이다.

5번	모범 답안(예시)
----	-----------

1)	1점	㉗ 제목 ㉘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
2)	1점	햇 시팅
3)	1점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 비교하기

6번	모범 답안(예시)
----	-----------

1)	1점	㉓ 콜럼버스에 관한 글쓴이의 새로운 관점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㉔ 글쓴이의 관점을 잘 나타내는 표현
		● <b>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b> ① 제목과 글에 사용한 표현을 보면 글쓴이의 관점을 알 수 있다. ② 글의 내용 파악으로 글쓴이가 알려 주고 싶은 생각을 찾을 수 있다. ③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본다. ④ 글에 포함한 그림이나 사진을 살펴본다. ⑤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 본다. *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한다. 관점에 따라 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2)	1점	① 널븐 ② 연음현상
3)	1점	글의 화제나 대상 파악하기

4)	1점	<p><b>콜럼버스 항해와 관련된 다른 관점의 텍스트 내용과 연결을 통하여 텍스트를 이해한다</b></p> <p><b>상호 텍스트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은 간단히 말하여 텍스트 간의 상호 관련성이라 한다. 이 개념이 처음 논의될 때는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서로 영향 관계에 있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지만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개념이 넓어졌고, 일반적인 언어 활동과 사고 활동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li> </ul> <p><b>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의 이해는 독자의 배경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텍스트의 내용과 연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사고 작용을 통하여 관련 텍스트들의 내용과 의미를 연결함을 의미한다.</b></p>
----	----	--

6번	모범 답안(예시)
----	-----------

'자음군 단순화'란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자음 한 개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앞의 자음이 남는 용례로는 '뭉[목], 앓다[안따], 뉘대[닐따], 외곶[외골], 앉네[안네], 앓는[알른]' 등을 들 수 있으며, 뒤의 자음이 남는 용례로는 '땀[닥], 읊대[읍따], 쫓대[죇따]' 등을 들 수 있다.

**연음**이란 앞 음절의 받침이 뒤따르는 모음의 첫소리로 옮겨가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며,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와 연결될 때 연음이 이루어진다.

**제4장 받침의 발음**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비]으로 발음한다.**

닭다[닥따]	키웁[키웁]	키웁과[키웁과]	웃[온]
웃대[웃따]	있대[인따]	젓[절]	빛대[빔따]
꽃[곤]	쫓대[죇따]	술[숯]	뺨대[뺨따]
앞[압]	뉘대[닐따]		

**제10항 겹받침 'ㄲ', 'ㄴㄹ', 'ㄹㄹ, ㄹㅁ, ㄹ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비]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과]	앓다[안따]	여덟[여덜]
넋대[닐따]	외곶[외골]	할대[할따]	값[갑]
없다[업따]			

**다만, '뺨-'은 자음 앞에서 [뺨]으로 발음하고, '넋-'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넋]으로 발음한다.**

(1)뺨대[뺨따]	뺨소[뺨쏘]	뺨지[뺨찌]	뺨는[뺨는→뺨는]
뺨게[뺨께]	뺨고[뺨꼬]		

(2)넋-죽하다[넋쫓카다] 넋-동글다[넋똥글다]

**제11항 겹받침 'ㄹㄹ, ㄹㅁ, ㄹ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비]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과]	맏대[막따]	늑지[늑찌]
삼[삼]	젓대[젇따]	울고[울꼬]	읊대[읍따]
맑게[말께]	웁고[울꼬]	읽거나[일꺼나]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7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p>① ㉠, ㉡</p> <p>② (가)에서 ㉠의 '삶'은 명사로서 관형어 '우리'의 수식을 받으며, ㉡과 품사가 같은 것, 즉 명사인 것은 ㉢와 ㉣인데, ㉢는 '추-'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현란한'의 수식을 받으며, ㉣는 '걸-'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학생들의'의 수식을 받는다. ㉤는 '웃-'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멋쩍게'의 수식을 받으며, ㉥는 '그리-'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잘'의 수식을 받는다.</p>
2)	1점	<p>받침 'ㅂ, ㄷ, ㄱ'이 비음 'ㄹ'을 만났을 때, 'ㅂ, ㄷ, ㄱ'이 'ㄹ, ㄴ,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p> <p>(예) 밥물[밤물], 단는[단는], 국물[궁물]</p>
3)	1점	<p>사실적 질문 - ㉠ 추론적 질문 - ㉡, ㉢ 비판적 질문 - ㉣</p>

8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공감
2)	1점	<p>공통점: match구치기 전략</p> <p>차이점: ㉠은 비언어적 반응이고, ㉡은 언어적 반응이다.</p>
3)	1점	<p>요약하기, 반영하기</p> <p>●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p> <p>소극적 듣기는 상대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맥락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p> <p>'집중하기'는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집중해 눈을 맞추고, 몸을 향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적절한 손짓을 하는 것이다.</p> <p>'격려하기'는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술이다.</p> <p>적극적 듣기는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반영해주는 구실을 해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다.</p> <p>요약하기'는 화자의 말을 그대로 요약해 재진술해 주는 기술로, 상대의 말을 분명히 이해했음을 알리고 화자의 현재 상태에 공감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p> <p>'반영하기'는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해 줌으로써 공감을 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p>

9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모둠은 4~5명으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한다
2)	1점	<p>훑어보기(Survey)</p> <p>① 그래픽 조직자</p> <p>②</p>
3)	1점	<pre> graph TD     A[미래직업] --&gt; B[환경]     A --&gt; C[로봇]     B --&gt; D[기후변화]     B --&gt; E[에코제품 디자이너]     C --&gt; F[로봇 디자이너]     C --&gt; G[공연기획자] </pre>
4)	1점	사실적 질문
5)	1점	<p>각 학생의 향상 점수를 계산하여 향상 점수가 우수한 모듈에게 보상한다.</p> <p>■ SQ3R</p> <p>① 훑어보기(Survey)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전에 단원명, 단원에 실린 제재의 제목, 삽화, 표, 요약, 학습활동 등을 먼저 빠르게 검토한다.</p> <p>② 질문하기(Question) 전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만든다..</p> <p>③ 읽기(Read)</p> <p>④ 확인하기(Recite)</p> <p>⑤ 재검토하기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재구성하며 잘 이해되지 않는 분을 재검토해본다</p> <p>■ 미리보기 전략</p> <p>미리 보기[preview]는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이나 차례, 소개문이나 요약문, 도표나 삽화 등을 미리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이 활동은 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미리 보기를 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p> <p>첫째, 제목을 보고 그 글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예상해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한다.</p> <p>둘째, 소개문이나 요약문을 읽는다. 소개문과 요약문은 글의 요지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소개문과 요약문을 읽으면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p> <p>셋째, 소제목들을 읽으면서 질문을 만든다. 이때 소제목들을 읽으면서 찾게 될 정보를 예상하면서 질문을 만드는 것이 좋다.</p> <p>넷째, 도표나 지도 등의 보조 장치를 검토한다. 이것들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보 자원이 될 수 있다.</p>

위재권 편저



## 이 책의 특징

1. 기출 지문 개박살 내기 - 국어/사회/수학/과학
2.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변형
3.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 분석
4. 2022개정 교육과정 + 국정·검정 지도서 각론을 연계해서 문제수록

문제뽀개기-초등편

실전모의고사 뽀개기 10회

# 1회 A 초등학교 교육과정 A

국어

1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내용의 타당성
2)	1점	㉠ 독자 ㉡ 사실
3)	1점	훈어 읽기
4)	1점	① 주요 특징 평가 ② 교사가 기대한 교수·학습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으므로 학생이 특정 과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2번		모범 답안(예시)
1)	2점	① 자음 축약: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ㅈ’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 ② 유음화: ‘ㄴ’이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
2)	2점	① ㅏ, ㅣ, ㅓ ② 중모음의 고모음화

### ① 축약

축약은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것으로 국어의 4가지 음운 변동 중 하나이다.

‘자음 축약’은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ㅈ’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좋+고→조교’, ‘잡+히다→자피다’ 등에서 일어난다. 자음 축약은 발음상만 나타날 뿐 표기가 변하는 건 아니다. ‘모음 축약’은 두 개의 모음이 만나 하나의 모음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새’처럼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단모음이 되거나(간음화) ‘그리어→그러’처럼 단모음 둘이 줄어 이중모음이 되는 것 등이다. 모음 축약은 표기로도 나타난다.

### ② 비음화

‘ㄱ, ㄷ, ㅂ’이 ‘ㄴ, ㅁ’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이것은 비음 앞의 ‘ㄱ, ㄷ, ㅂ’이 각각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비음화는 ‘밥 먹는[밤명는]’처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 유음의 비음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 ‘ㄹ’이 올 때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

### ③ 유음화

‘ㄴ’이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이때 ‘ㄹ’은 ‘ㄴ’보다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다. ‘ㄹ’이 ‘ㄴ’ 뒤에 올 때에는 ‘등산로[등산노]’처럼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 ④ 한글 맞춤법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야)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 ⑤ 단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⑥ 이중 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달라지는 모음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혀의 앞뒤 입술모양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이				
고모음	ㅣ	ㅓ	ㅡ	ㅜ
중모음	ㅓ	ㅕ	ㅗ	ㅛ
저모음	ㅗ		ㅜ	

3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시적 화자
2)	1점	“이 시에서 ‘번데기’와 ‘달팽이’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3)	1점	“비슷한 마음이 담긴 시를 한번 찾아 읽어 볼까요?”

### ■ 시적 화자

시인을 대신하여 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말하는 이’로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성격, 태도, 목소리를 부여한 시적 장치이다.

화자는 시인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자가 실제 시인과 동일시되는 경우에는 주로 자기 고백적인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시에 따라 화자가, ‘나’로 직접 드러나기도 하지만,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 ■ 시의 심상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말한다.

#### ① 심상의 종류: 감각의 종류에 따라

시각적 심상 - 색채, 명암, 모양, 움직임 등 눈을 통해 느끼는 심상

청각적 심상 - 귀를 통해 소리로 느끼는 심상

후각적 심상 - 코를 통해 느끼는 냄새의 감각을 이용한 심상

미각적 심상 - 혀를 통해 느끼는 맛의 감각을 이용한 심상

촉각적 심상 - 피부를 통해 느끼는 촉감에 관련된 심상

공감각적 심상 - 둘 이상의 감각이 결합되어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심상

#### ② 심상의 종류: 표현 방법에 따라

묘사적 심상 - 구체적인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나타나는 심상

비유적 심상 -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심상

상징적 심상 - 시적 언어의 상징성으로 이루어지는 심상

3번	모범 답안(예시)
<p>■ 상호텍스트</p> <p>읽기에는 시대정신이나 관념과 같은 근원적인 맥락만이 아니라, 그 글의 내용이나 형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호텍스트적인 맥락이 있다. 상호텍스트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글이나 사태라는 뜻으로, 글은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에서 다른 것과 연관될 수 있다.</p> <p>① 내용적인 면에서의 상호텍스트</p> <p>내용적인 면에서의 상호텍스트는 예를 들어,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은 '이전에 발표된 달라이 라마에 대한 책 내용, 달라이 라마의 실제 사상과 생활, 티베트의 문화와 역사, 불교의 세계관이나 인생관, 달라이 라마의 상황(처지)' 등 그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얽혀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이 포함된다. 스키마 이론에서 설명하는 내용 스키마가 바로 이러한 상호텍스트적 맥락을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p> <p>② 형식적인 면에서의 상호텍스트</p> <p>형식적인 면에서의 상호텍스트는 글의 형식과 관련되는 모든 글과 상황 및 그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은 이전에 쓰인 교양서의 구조와 기능 및 표현 등의 글 형식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책이 기록 형식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고, 기록을 읽는 방식을 적용하여 주장보다는 사실이나 느낌에 주목하며 이 책을 읽어야 할 수 있다.</p>	

영 어

4번	모범 답안(예시)
1)	2점
	<p>㉠ &lt;활동 2&gt;는 듣기 지도에서 듣기 중 활동(while-listening)에 해당한다.</p> <p>&lt;활동 2&gt;는 대화 장면을 보여 주고 상황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듣기 중 활동(while-listening)이다.</p> <p>㉡ &lt;활동 2&gt;의 (가)에서 김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clarification request' 기법을 사용하였다.</p> <p><b>김 교사는 명료화 요청(clarification request)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를 이해 못했을 경우나, 오류가 있을 때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학생이 Class라고 대답하자 교사가 Is it 'class' or 'classroom'? 이라고 질문하여 학생이 Ah! Classroom.으로 대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b></p>
2)	1점
	<p>'onset'이 같은 음절: cap-cat 'rhyme'이 같은 음절: can-pan, call-tall, Gate-late</p>

■ 듣기지도 → PWP 모형

듣기 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형지식을 활성화하고 하향식 과정(top-down)을 자극한다.</li> <li>• 의사소통 상황(대화자, 장소, 시간 등)을 통하여 의미 이해</li> <li>• 대화 내용 추측</li> <li>• 이미 학습한 표현(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과 어휘 복습</li> <li>• 다양한 듣기 목적 설정(전체 의미 이해, 특정 정보 파악)</li> </ul>
듣기 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향식 전략과 상향식 전략을 모두 활용하는 상호작용적 듣기 연습을 도모하고, 여러 듣기 전략을 항상 시킬 수 있는 듣기 과제를 사용한다.</li> <li>•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기</li> <li>• 특정 정보를 파악했는지 확인하기</li> <li>• 다양한 듣기 활동(듣고 그리기, 듣고 표 완성하기, 듣고 길 찾기)</li> </ul>
듣기 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은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거나 들은 내용을 말하기 읽기 등 다른 기능으로 통합하여 듣기 수업을 마무리한다.</li> <li>• 언어 연습 활동 : 언어 형식, 낱말, 소리 등</li> <li>• 따라 말하기 활동 : 대화자의 역할을 맡아 따라 말하기</li> <li>• 대화 스크립터 읽기</li> <li>• 대화 듣고 낱말 받아쓰기</li> </ul>

5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① automatization, 또는 acquisition ② fossilization
2)	2점
	① 'yesterday night' ② 'goed'와 'eated'
3)	1점
	Portfolio
<p>영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은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언어 간 오류(interlingual errors)와 목표어의 선행 학습 지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언어내적 오류(intralingual errors)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언어내적 오류는 언어 학습 과정에서 선행 학습 지식의 과일반화(overgeneralization)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발달 과정상의 오류(developmental)라고 하기도 한다. (나)에서 'yesterday night'는 우리말 의미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것으로 언어 간 오류이다. 반면에 'goed'와 'eated'는 과거 규칙을 과일반화하여 적용한 언어내적 오류이다.</p>	

총론 · 창의적 체험활동

6번	모범 답안(예시)
2점	㉠ 자율·자치 활동 ㉡ 자문

사회

7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환경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2)	1점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
3)	1점	지구본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갈 때 대권항로를 알려준다
4)	1점	㉔ 투영 ㉕ 정각
5)	1점	공간정보
<b>■ 대권항로</b> 지리학에서는 대권(大圈)이라고 한다. 자오선과 적도선이 대권에 해당한다. 대권은 이동하기 위한 가장 짧은 거리가 되며, 연료를 최소로 써야 하는 비행기는 대권항로를 이용한다		

8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㉑ 한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를 한국 사람이 구매한다 한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무료로 제공 한다. ㉒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한 것을 사고파는 활동이 아니므로
2)	1점	보호무역
3)	2점	㉑ 여러 사례를 동일한 개념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㉒ 가치 · 태도

■ 원형 모형

원형 모형은 개념의 원형(전형적 예)을 통해 그 개념이 지닌 결정적 속성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원형 모형은 특징(속성)이 모호하여 개념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 적절한 예를 통해 개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동일한 개념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원형 모형의 수업 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 → 개념의 원형과 정의 제시 → 비례 제시 → 속성 검토 → 개념 분석 → 관련 문제검토 → 평가'의 순서로 전개된다.

■ 자유 무역

이 정책은 반드시 한 국가가 수입과 수출에 대한 모든 통제와 과세를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무역은 국가간 분업은 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에 특화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생산을 가져온다**는 애덤 스미스의 논의에 이론적인 기초를 두었다. 어느 한 나라의 관점에서는 규제가 사실상 이익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그 나라가 특정 상품의 주요 구매자이거나 판매자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내산업의 보호는 소수 국민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국가들간의 관세장벽과 통화규제를 낮추려는 상당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수입할당제, 과세,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무역장벽들이 자유무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보호무역

**자유무역:** 정부가 수입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수출에 개입하지 않는 정책.

**보호무역:**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무역을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정책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공정무역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생산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을 하는 무역협력이다.**

또 국제무역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회운동을 말하기도 한다. 전통적 의미의 무역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의 공정무역은 특히 제3세계 소외된 지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의 창출, 투명성과 책임성, 생산능력 배양, 공정한 가격의 지불, 양성평등, 합리적인 노동조건, 환경보호 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교역품목은 주로 수공업품, 커피, 코코아, 차, 바나나, 꿀, 면, 와인, 과일 등

도 덕

9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 사회 ㉡ 개인
2)	1점	도덕과 개인적 선호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도덕적인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1점	포함 검사
4)	1점	통합적
5)	1점	프로젝트

■ (2) 평가 방법

- (가) 선택형, 서술형, 논술형을 포함하는 **지필평가와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관찰 평가, 구술 평가** 등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일어난 변화와 성장을 평가한다.
- (나) **논술 평가**를 통해 문제 상황을 도덕 문제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 능력, 자신의 도덕적 주장을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덕적 글쓰기 능력 등을 평가한다.
- (다)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정의 관찰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주장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도덕적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소통할 수 있는 도덕적 의사소통 능력과 토론을 준비하는 자세, 상대방에 대한 존중, 토론 규칙 준수, 토론에 대한 반성 등의 도덕적 태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 (라) **프로젝트 평가**를 통해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료들과의 협업 능력, 활동 결과에 대한 발표 능력 등을 교사 평가, 동료 평가, 자기 평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마)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일정 기간 수행한 학습 과정과 도덕적 수행의 결과들을 누적하여 학생의 도덕적 성장을 평가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수행과제들을 스스로 작성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실 과

10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 더하기 ㉡ 빼기
2)	1점	시제품
3)	1점	버려진 재료도 재활용
4)	1점	일 중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며 일정 기간 계속해서 하는 일
5)	1점	이를 위해 평가 항목을 구체화한 채점 기준을 학생들과 함께 작성하여 동기유발은 물론 학습자가 평가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토타입(Prototype)’ = 시제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프로토타입(Prototype)**’입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 최초의 아이디어를 미리 테스트 하는 과정은 최종 제품을 더욱 완성도 있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 (2) 평가 방법

- (가)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장면에서 주어지는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이 학습의 목표 달성과 학습 촉진을 위한 관건이 되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다양한 방법의 피드백을 계획하여 실시하되, 학생 상호간의 피드백도 적절히 활용한다.
- (나) 실과(기술·가정)의 평가를 할 때 단순히 지식·이해의 평가뿐 아니라 과정·기능의 수행, 가치·태도의 내면화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 (다) 평가는 평가 목표와 평가 내용에 따라서, 학습자가 직접 답을 구성해가는 개념지도,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그래프나 표, 도안 만들기 등의 방법, **특정 산출물을 요구하는 방법**(연구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학습 노트, 포트폴리오), 각종 디지털·AI 도구를 활용한 영상 및 제작물 만들기 등의 방법, **특정 활동을 요구하는 방법**(구두발표, 시연 및 실습, 토의 및 토론), **과정을 밝히는 방법**(관찰 및 면담, 학습일지, 회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과제 수행의 성취를 돕고, 신뢰도 높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채점 기준(루브릭)**을 개발하여 공개하고 채점에 활용한다.
- (라) 평가 문항은 단순한 사실이나 지식의 측정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 등의 고등정신 기능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양질의 문항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 (마) **평가에서 학습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협력적 학습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의 주체를 교사 외에 학습자 본인과 동료 학생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한다.** 이를 위해 **평가 항목을 구체화한 채점 기준을 학생들과 함께 작성**하여 동기유발은 물론 학습자가 평가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바) 학습 부진, 학습속도, 일시적 사고 등의 다양한 학습자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기준’ 및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 (사) 평가 상황에서 학습자의 디지털 격차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실시하되, 학습자가 평가 장면에서 갖추어야 할 책임성도 강조하여 실시한다.

수학

1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공간 방향화
2)	1점	㉠ 안정된 순서의 원리 ㉡ 네가 가진 보물이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볼까 ㉢ (순서무관의 원리에 따라) 물체의 수를 셀 때 어떤 물체부터 세기를 시작해도무방하여, 왼쪽이나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세어도 결과가 마찬가지로 정확히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3)	1점	자기 평가

■ 공간 감각(NCTM, 2007)

전미 수학 교사 협의회(NCTM)에서는 공간 시각화, 공간적 추론, 기하 모델링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공간 감각을 설명하고 있다. 공간 감각은 하위 능력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공간을 시각화하여 머릿속에서 조작을 하며, 하나의 물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식하고 기하 모델과 공간 추론을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을 해석하고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공간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아이들은 반드시 기하학적 관계에 초점을 둔 많은 경험, 즉 방향, 방위, 공간에서의 물체의 원근, 도형과 물체의 모양과 크기의 연관성, 크기와 모양, 그것들의 변화의 연관성 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에서는 공간 시각화와 공간 방향화의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공간 시각화

공간 시각화는 공간의 대상, 관계, 변환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구성하고 이것을 조작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 시각화를 2차원과 3차원 물체를 머릿속에서 만들고 조작하는 것과 하나의 물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도형을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경험을 통하여 시각화 기술을 발달시켜야 함을 주장하였고 **저학년에서는 기하 도형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하나의 도형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식별하고 표현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학년에서는 기하 대상을 만들고 그리기, 대상, 규칙성, 경로 등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고 기술하기, 3차원 대상의 2차원 표현을 보고 3차원 대상을 확인하고 만들기, 3차원 대상의 2차원 표현을 확인하고 3차원 대상을 2차원으로 표현하기를 기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 공간 시각화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도형이나 대상을 배경과 분리하여 인지하고 다른 도형과 다름을 인지하여 식별하고, 특성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간도형의 시각적 인식으로 보았다.

둘째, 공간도형을 정신적으로 회전하여 회전 전후 모양과 과정을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인 공간도형의 정신적 조작을 하나의 요소로 보았다.

셋째, 2차원 도형을 3차원으로 변환하거나 3차원 도형을 2차원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인 공간도형의 차원 변환을 하나의 요소로 보았다.

넷째, 공간도형을 여러 방향에서 본 모양을 바탕으로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인 공간도형의 구조 파악을 하나의 요소로 보았다.

다섯째, 공간도형의 패턴을 바꾸어 도형의 패턴을 재배열하는 능력을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았다.

나. 공간 방향화

공간 방향화는 우리가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공간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아는 능력이다. 즉, 공간에서 여러 가지 위치 사이의 관계를 자신의 위치에서 이해하고 조작하고 자신 주변에 대한 정신적 지도를 만들고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위치를 구체화하고 좌표 기하와 다른 표현 체계를 사용하여 공간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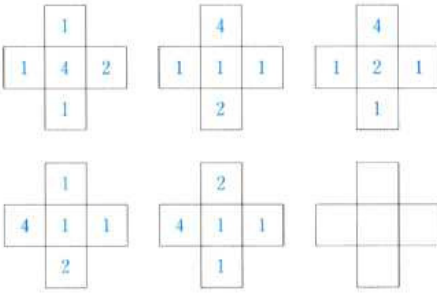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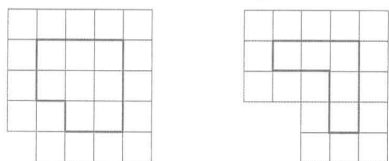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으로 **저학년에서는 공간에서 관련된 위치를 설명하고 이름을 붙이며 관련된 위치에 대한 생각을 적용하기, 공간을 가로지르는 방향과 거리를 해석하고 방향과 거리에 대한 생각을 적용하기, 지도와 같은 좌표 체계에서 '근처'와 같은 간단한 관계의 위치를 찾고 이름 붙이기를 권하였다.**

**고학년에서는 일상 언어, 기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위치와 이동을 설명하기, 위치를 구체화하고 길을 설명하기 위해 좌표 체계를 만들고 사용하기, 좌표 체계의 수평, 수직선을 따라 점 사이의 거리를 찾는 활동을 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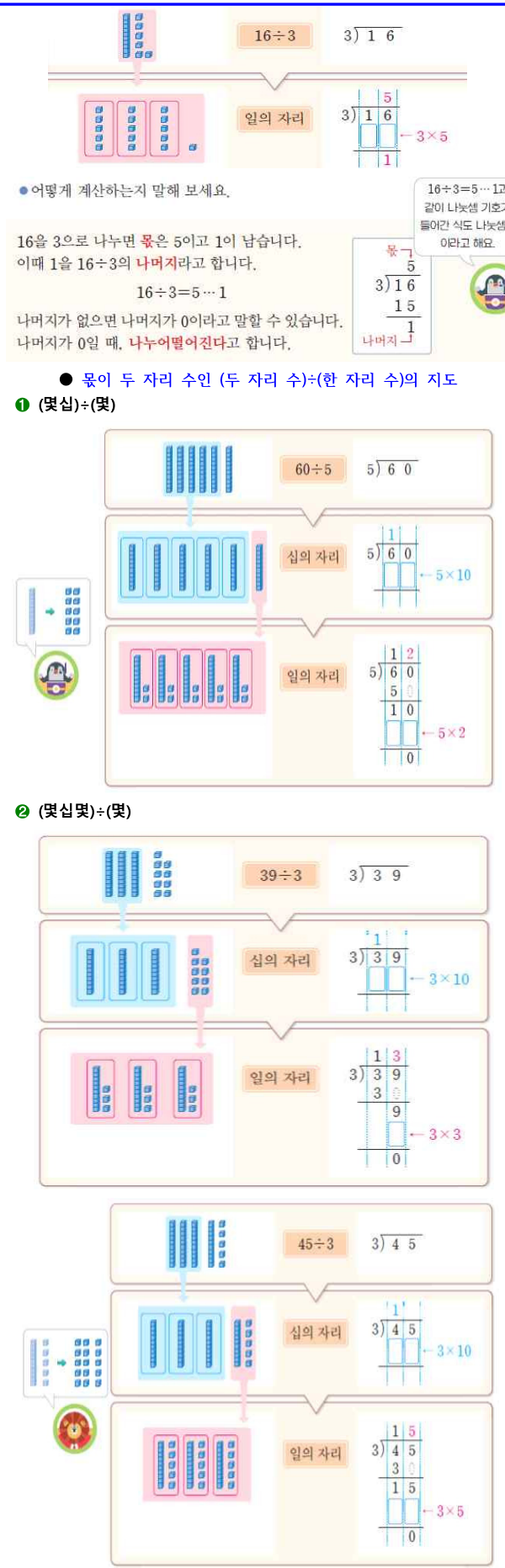
또 공간 방향화의 하위 요소로는 위치화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고 위치와 관련된 용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좌표와 같은 표현 체계를 활용하여 거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기초적인 방향 체계를 바탕으로 방향 감각을 익히고 이를 좌표 체계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 자기 평가

자기 평가에서의 피드백은 자신에게 주는 것이므로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피드백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조절 전략을 개발할 수도 있다. 적절한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평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익혀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기 평가 전략 중 하나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기록과 성찰**이다. 학생은 스스로 수행을 점검해 자신이 무엇을 아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수업의 의도를 생각하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할 수 있다.

2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5가지 
2)	1점	<p>㉠ ㉡ 옆 사람의 방법과 비교해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도 구해 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보세요.”</p> <p>㉢ 13</p> <p>2층                      3층</p>  <p>1층, 4층, 5층은 모든 쌍기나무가 적어도 한 면은 보인다.  2층은 8개의 쌍기나무가 한 면도 보이지 않는다.  3층은 5개의 쌍기나무가 한 면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한 면도 보이지 않는 쌍기나무는 8+5=13(개)</p>
3)	1점	㉣으로 인해 토파즈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교수학적 계약에 의한 압박에 의해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교사가 방해하거나 제거함으로 인해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4)	1점	이 문제는 ‘실제로 해 보기’ 및 ‘그림 그리기’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3번		모범 답안(예시)
1)	1점	나머지가 몫보다 작다고 생각하기
2)	1점	㉠ 앞자리 수 전략 ㉡ 반올림 전략
3)	1점	나누어 떨어진다
4)	1점	(나) 연필 29자루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한 사람에게 몇 자루씩 나눠주나요? (다) 연필 68자루를 한 사람에게 5자루씩 나누어 주면 몇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해 보세요.

16을 3으로 나누면 몫은 5이고 1이 남습니다. 이때 1을 16÷3의 나머지라고 합니다.

$$16 \div 3 = 5 \dots 1$$

나머지가 없으면 나머지가 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0일 때, 나누어떨어진다고 합니다.

● 몫이 두 자리 수인 (두 자리 수)÷(한 자리 수)의 지도

① (몫십)÷(몫)

② (몫십몫)÷(몫)

